

민화에 표현된 연꽃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발상  
- 셔츠 디자인을 중심으로 -

전 중 자 조 진 숙<sup>†</sup>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Design Expression of Lotus Pattern Presented in Minhwa**  
**- Focused on Shirts Design -**

**Jung Ja Jun and Jean Suk Cho<sup>†</sup>**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2010. 4. 23. 접수일 : 2010. 5. 29. 수정완료일 : 2010. 8. 11. 게재확정일)

**Abstract**

The current study aims to link Korean tradition to modern culture; to re-produce patterns of lotus depicted in Minhwa. The study also aims to discover the beauty of Korean tradition and to modernize it. The current study is based upon document searches(including research papers) and the Internet searches. Through these searches, it investigates the concept of Minhwa, the origin of lotus depiction and its symbolic meanings, the traits of such pattern. Based upon this investigation, the study attempts to modernize the patterns of lotus and apply the modernized patterns to designing shirts. The process which employs the lotus patterns illustrated in Minhwa to shirt design includes four sub-processes: selecting, allocating, coloring, and selecting production techniques. The sub-process of selecting patterns is two folded: the first stage covers carbon-copying the distinctive features of lotus, lotus leaf, lotus bud, lotus pip, and lotus stem; the second stage is making these features suitable to shirt sizes. For the process of coloring those shirts, Picasso's work(Pablo Picasso, 1881 ~ 1973) has been selected and the colors in his work have been adopted to dye the rest of the shirts as well as the lotus features. The process of selecting production techniques includes ornament tail in order to modernize the patterns allocated in the shirts. Once these processes are completed, the shirts are made on a scale of real-life size. These processes of creating shirt design by modernizing traditional patterns will hopefully contribute to researchers expanding the domain of shirt design.

*Key words: Minhwa(민화), lotus pattern(연꽃 문양), design expression(디자인 발상), shirts design(셔츠 디자인).*

I. 서 론

전통은 각 나라와 민족의 풍습과 문화를 기반으

로 한 고유의 특성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는 문화전쟁의 시대로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상품화하여 경제적인 이익과 함께 문화적으로도 우위를 차지하고자 한다<sup>1)</sup>. 우리나라

본 논문은 경원대학교 2010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sup>†</sup> 교신저자 E-mail : bich201@naver.com

도 최근 패션산업의 세계화 방안의 하나로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생각 아래 전통미의 계승을 통한 한국의 국제화라는 주제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본 연구자는 우리의 전통을 패션에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었다. 우리의 전통은 미래의 우리를 표현하는 지식의 보고이며, 현재의 우리를 창조해 나가는 자양분이라<sup>2)</sup>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민화는 우리나라 전통 회화의 한 장르로서 다락문이나 벽면을 장식했던 그림이다. 민화는 감상을 목적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고 일상생활의 필요에 의해 그린 그림이었기 때문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표현하므로 그 기법이 매우 신선하고 독창적이다<sup>3)</sup>. 민화에 나타난 문양을 살펴보면 연꽃이나 모란꽃, 까치나 원앙새, 나비, 물고기, 호랑이, 용, 곤충, 책, 신선 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연꽃 문양은 생명의 창조나 변형 등 길상을 나타내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자주 사용되었으며, 형태는 사실적 묘사보다는 다소 생략되거나 과장되어 마치 현대 회화를 보는 듯 매우 독특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미가 표현되어 있는 연꽃 문양을 현대 의상디자인에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즐겨 입는 셔츠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셔츠의 의복 형태가 도화지와 같은 특성이 있어서 전통 문양을 활용하여 표현하는데 적합하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장용뿐만 아니라 캐주얼용으로도 즐겨 입기 때문이다. 연꽃 문양의 현대적 활용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sup>4~7)</sup>, 연꽃 문양을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문양 형태를 양식화하여 패치워크, 아플리케, 비딩, 누빔, 자수, 은박 등의 기법으로 복식에 표현하는 방법,

프린트나 직조 등의 기법으로 직물을 개발하여 현대 의상디자인에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연꽃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현대 의상을 디자인하는 방법의 세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화에 표현된 연꽃 문양을 현대적 디자인에 활용하는 것으로 형태는 전통 문양이지만 색상은 현대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현대화 작업을 거쳐서 셔츠 디자인에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민화와 연꽃 문양에 관련된 문헌과 논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민화의 개념과 특성, 연꽃 문양의 유래와 상징에 대해 고찰하고, 디자인 발상과 관련된 문헌과 선행 연구, 패션 잡지 등을 참고로 하여 디자인 발상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민화에 표현된 연꽃 문양을 활용하여 모던하면서도 미래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문양을 개발하여 셔츠 디자인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민족 고유의 전통 문양을 모티브로 하여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창조하는 일은 패션의 문화적 인식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셔츠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창의적 디자인을 추구하는 의상디자이너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민화의 개념과 특성

민화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생활의 반영이며, 미의식과 소박한 생활감정이 솔직하게 반영되어있는 미적 표현물로서 그 시대 문화현상의 일부를 대변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민화는 한국적인 회화 형태로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전통미술의 한 장르이다<sup>8)</sup>. 민화는 그 시초가 고구려벽화라 볼 수 있으나, 본격적으로 민화가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 현존해 있는 민화도 조선시대 후

1) 이준하, “한국민화에 있어서 꽃 그림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1.

2) 한국미술연구소, *디자인! 디자인!* (서울: 시공사, 1997), p. 14.

3) 김영학, *민화* (서울: 대원사, 1996), p. 83.

4) 한정아, “전통문양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 백현옥, “한국의 전통문양을 응용한 웨딩드레스 연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 노현경, “한국 문민화에 있어서 연꽃의 조형성을 응용한 현대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7) 이기향, “연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현대 의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8) 이준하, *op. cit.*, p. 4.

기 이후의 것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민화가 감상만을 위해 그려진 그림이 아니고 생활의 필요에 따라 다락문이나 벽에 붙이거나, 병풍을 꾸며서 생활의 공간을 꾸미기 위한 생활화의 기능을 가진 그림으로 세월이 지남에 따라 계속되는 도배에 문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sup>9)</sup>. 우리나라의 기후는 일 년의 삼분의 일이 겨울이므로 추운 겨울의 외풍을 막기 위해 집안의 벽이나 다락문에 도배를 하거나 병풍을 사용하였다. 병풍은 옷풍이 센 우리네 한옥 구조의 결함을 보완하거나 방안의 자질구레한 물건을 가리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살림 세간으로 병풍이 둘러칠 장소나 행사의 내용에 적당한 민화가 선택되어<sup>10)</sup> 행사의 내용에 따라 그 행사에 맞는 그림을 그려 사용하였다. 가령 혼인식에는 산수, 화조, 모란, 연화 등의 그림이 그려진 병풍을 사용하였으며, 환갑 연에는 장수와 관계되는 그림인 십장생도 등의 병풍을 사용하였다<sup>11)</sup>. 민화를 그리는 화가는 주로 종이와 화구를 붓짐에 쟁겨서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며 의뢰받은 그림을 그려주는 떠돌이 화가였다. 그들은 때로는 5일마다 서는 시골 장날을 찾아다니며 손님의 주문대로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주

기도 하였다<sup>12)</sup>. 이처럼 민화는 민중의 통속적 소망을 담아 그리는 그림으로 개인의 서명이 거의 없으며, 소박한 생활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 기법이 매우 소박하고 신선하기까지 하다<sup>13)</sup>. 민화의 미학적 특성에 대해 이우환(1982)은 떠돌이 화가에 의해 그려진 민화는 대상이나 이념을 향하기보다는 주어진 조건에 의한 삶의 모습에 보다 더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극히 평범한 자유로운 구도, 허세라든가 가식이 없는 자유스러운 필치가 생활화에 알맞은 독자적인 화법으로 터득되고 깨우쳐졌다<sup>14)</sup>고 했다. 이동주(1990)는 민화는 꿈과 믿음이 담겨져 있고, 따뜻하면서도 조용하며 순박한 멋을 지닌 한국인들의 고상한 품위에 부합되는 도덕성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서 민화가 가지는 소박한 형태감을 한국 회화의 대표적 표현인 천진천연의 소박주의로서 연결되는 면이 있다<sup>15)</sup>고 말했다. 이처럼 소박 담백한 표현의 민화는 자세히 살펴보면 익살스러운 면도 있으며 더욱이 매우 독창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호연(1996)은 우리 민화 속에는 정면성, 동시성, 입체성, 과장성, 의인성, 환상성 등



〈그림 1〉 다시점구도의 책 〈그림 2〉 원근법이 무시된 〈그림 3〉 평면적으로 그려진 〈그림 4〉 대칭형 구도의 모  
 거리. 출처: *민화란 무엇인가*, p. 53. 산수. 출처: *민화란 무엇인가*, p. 49. 사불상. 출처: *민화란 무엇인가*, p. 66. 란꽃. 출처: *민화란 무엇인가*, p. 68.

9) 김영학, *op. cit.*, p. 10.  
 10) 윤열수, *민화 이야기* (서울: 디자인 하우스, 1997), pp. 20-21.  
 11) 김영학, *op. cit.*, p. 30.  
 12) *Ibid.*, pp. 35-36.  
 13) 임두빈, *민화란 무엇인가* (서울:서문당, 1997), pp. 35-37.  
 14) 이우환, *이조의 민화* (서울: 열화당, 1982), p. 38.  
 15) 이동주, *한국 회화사론* (서울: 열화당, 1990), p. 42.

이 표현되어 있고, 그러한 독특한 표현 중의 어떤 것은 서구 미술보다 훨씬 앞선 것도 있다<sup>16)</sup>고 했다. 이러한 민화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한 그림 속에 여러 개의 시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다시점, 원근법의 무시, 과거, 현재, 미래의 동시적 표현, 객관적 시각이 아니라 주관적 감정에 의해 해석한 상호사물의 비례관계 무시, 각각의 물체에 가장 예쁜 색채를 칠해야 한다고 하는 소박한 목적에서 나온 개별적 색채 효과의 극대화, 입체감이나 공간감이 무시된 사물의 평면화, 화면 전체에 각각의 사물들을 겹쳐짐 없이 배치한 대칭형, 화면의 중앙 부위에 나란히 배치한 나열형 구도 등이 있다<sup>17)</sup>(그림 1~4).

또한 민화의 아름다운 그림 속에는 부귀다남(富貴多男), 부귀공명(富貴功名), 무병장수(無病長壽) 등 소박한 소원이 표현되어 있다. 우리나라 민화 연구자인 조자용은 1972년 민간사상을 기조로 하여 민화를 수(壽) 상징화, 복(福) 상징화, 벽사 상징화, 교양 상징화, 민족 상징화, 내세 상징화 등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sup>18)</sup>. 이처럼 민화는 아름다운 그림 속에 소원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 어우러져 있는데, 이러한 점이 민화만의 독특한 미술세계를 이루는 것은 아닐까 한다.

2. 연꽃 문양의 유래와 상징

연꽃은 인도가 원산지이며, 수련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로 높이나 연못에서 자라고 3, 4월에 심으면 5월쯤에 연잎이 피기 시작하여 6~7월쯤에는 연꽃이 피고, 9월 말쯤이면 잎이 시든다<sup>19)</sup>. 연꽃의 생태적 특성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꽃이 피어도 꽃잎은 더럽게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불교에서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행의 이상을 연꽃에 비유한다. 또한, 인도에서는 연꽃이 광명의 꽃, 생명의 꽃이라는 사상이 고대 민속신앙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고 한다<sup>20)</sup>. 연꽃 문양의 발생과 전파에 대해서는 동서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서양에서 연꽃이 장식 문양으로 처음 사용된 시기는 고대 이집트로서 나일강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살아있는 나일강변의 연꽃을 보면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연꽃을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신성시 하였다. 동양에서 연꽃 문양은 인도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는 불교의 도입과 함께 고구려 소수림왕 2년(AC 372) 이후에 들어왔다<sup>21)</sup>. 불상과 불교경전이 들어오면서 종교적 상징이었던 연꽃 문양이 함께 들어와 공예, 건축 등 여러 분야에 장식 문양으로 전해졌을 것이다(그림 5~8).



<그림 5> 고구려, 쌍영총. 한<그림 6> 삼국시대, 연화문수<그림 7> 고려시대, 청자향<그림 8> 조선시대, 필낭. 한국역사박물관 소장. 막새. 한국역사박물관 소장. 로. 한국역사박물관 소장. 국역사박물관 소장.

16) 김영학, op. cit., p. 83.

17) Ibid., pp. 44-70.

18) Ibid., pp. 46-47.

19) 김영숙, “청자접시제작에 관한 연구: 연잎형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 6.

20) 노현경, op. cit., p. 6.

문양은 대상, 목적, 위치에 따라 어떤 문양을 배치하고 어떤 양식으로 구성되느냐를 분명하게 의도함으로써 그 나라와 민족의 독특한 미술양식을 지니게 되며 생활 속에 깃들여져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민화 속에서 연꽃 문양은 다남(多男), 연생(連生), 생명의 창조와 생식 번영, 부부 화목, 재물 등을 상징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남과 연생은 연꽃이 다른 식물과 달리 꽃과 열매가 함께 나란히 생겨나기 때문에 아들을 많이 얻는 다든가 연이어 자손을 얻는다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연꽃은 뿌리가 사방으로 널리 퍼지고 같은 뿌리의 마디마디에 잎과 꽃이 자라는 생태적 특성을 교합의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의 창조와 생식 번영을 상징한다. 연꽃과 함께 원앙이 그려진 경우는 부부 화목을, 물고기와 함께 그려진 경우는 재물이 풍부한 것을 상징한다. 나비 등 연꽃 주변의 풍경과 함께 그려진 경우는 인간사의 즐거움을 상징한다<sup>22)</sup>. 그밖에 연밥에 뚫린 작은 구멍들 속에는 재물이 가득 차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연밥은 자손과 풍작을 상징한다<sup>23)</sup>. 이처럼 연꽃 문양은 꽃 자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많은 길상을 상징한다.

### III. 연꽃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발상

민화에 나타난 독특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

는 연꽃 문양을 살펴보고, 연꽃을 구성하고 있는 연꽃, 연밥, 연잎, 연봉오리, 연 줄기 문양을 모티프로 셔츠 디자인에 활용하고자 한다. 디자인 발상 과정은 문양 선택, 문양 배치, 셔츠와 문양의 색채 배색, 제작 기법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쳤다(그림 9). 이렇게 디자인 발상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실물로 제작하였다.

#### 1. 문양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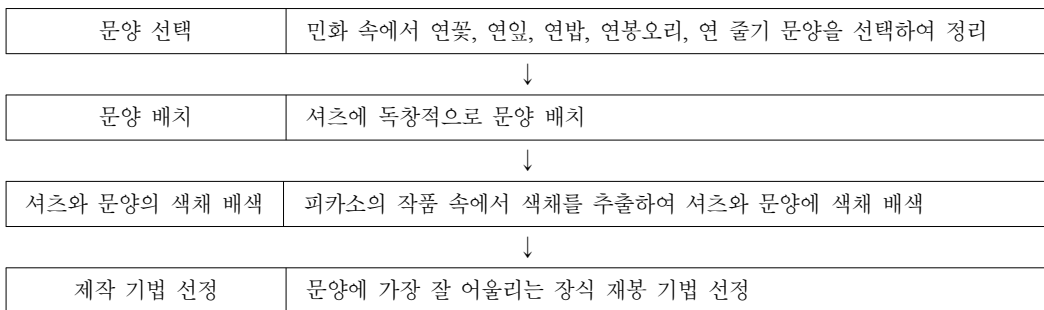
민화 속에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연꽃, 연잎, 연밥, 연봉오리, 연 줄기 문양을 선택하여 정리하였다(그림 10~21).

#### 2. 문양 배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셔츠 스타일은 칼라가 있으며, 긴 소매에 커프스가 달린 스타일을 말한다.

#### 1) 디자인 I

디자인 I은 연잎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셔츠의 앞부분은 중심에 연잎 문양을 세로로 길게 배치하고 연잎의 왼쪽 코너에는 연봉오리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소매에는 연뿌리의 단면 문양을 재미있게 배치하였다. 셔츠의 뒷부분은 밑단에 연잎 문양의 일부분을 배치하였다(그림 22).



<그림 9> 디자인 발상 과정.

21) 김지선, “한국 전통 꽃문양의 상징성과 형태 및 색채 특성에 따른 조형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 47-48.

22) 노현경, op. cit., p. 37.

23) 윤열수, op. cit., p. 324.



<그림 10> 백로도.

출처: 한국의 미, p. 61.



<그림 11> 연꽃 문양.



<그림 12> 화조도.

출처: 한국의 미, p. 53.



<그림 13> 연잎 문양.



<그림 14> 연화도.

출처: Korean Art Book, p. 160.



<그림 15> 연밥 문양.



<그림 16> 백로도.

출처: 한국의 미, p.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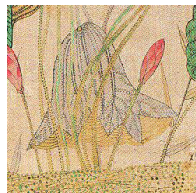


<그림 17> 연잎 문양.



<그림 18> 연화도.

출처: Korea Art Book, p. 438.



<그림 19> 연잎과 연봉오리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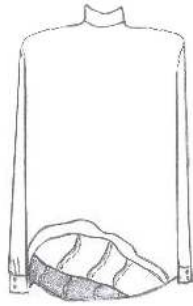


<그림 20> 연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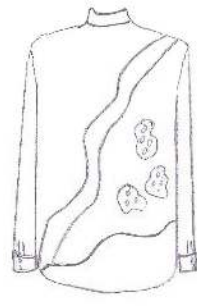
출처: Korea Art Book, p.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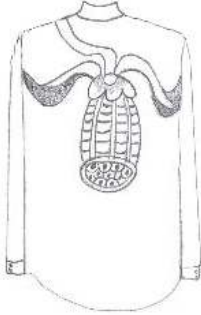
<그림 21> 연잎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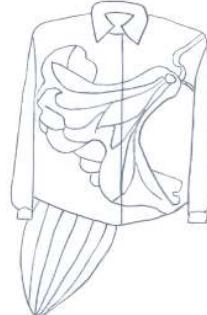
<그림 22> 디자인 I의 앞과 뒷모습.



<그림 24> 디자인 III의 앞과 뒷모습.



<그림 23> 디자인 II의 앞과 뒷모습.



<그림 25> 디자인 IV의 앞과 뒷모습.

2) 디자인 II

디자인 II는 연 줄기와 연밥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셔츠의 앞부분에는 연 줄기 문양을 왼쪽에 3줄로 배치하였고, 뒷부분에는 등 부위에 연밥 문양을 배치하였다(그림 23).

3) 디자인 III

디자인 III는 연밥과 연잎, 연봉오리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셔츠의 앞부분에는 연밥과 연꽃봉우리, 연잎을 배치하였다. 특히 앞부분 셔츠의 밑단은 연잎의 뾰족한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뒷부분보다 길이를 짧게 함으로써 뒷부분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어 연잎의 뾰족한 형태를 더욱 돋보이도록 하였다. 셔츠의 뒷부분에는 연뿌리를 사선으로 배치하고 그 아래 부분에 연뿌리의 단면을 재미있게 배치하였다(그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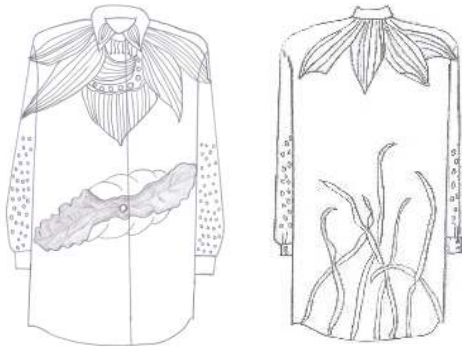
4) 디자인 IV

디자인 IV는 연잎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셔츠의 앞부분에 연잎을 사선 방향으로 크게 배치하였으며, 앞부분의 길이를 뒷부분보다 짧게 하고 밑단에 연꽃잎 한 장을 꼬리처럼 부착하였다. 반면 셔츠의 뒷부분에는 문양을 배치하지 않았다(그림 25).

5) 디자인 V

디자인 V는 연꽃과 풀잎, 연잎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셔츠의 앞부분은 칼라와 목부분에 연꽃 문양을 스카프가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배치하였으며, 중앙에는 연잎 문양을 사선으로 배치하여 연꽃을 받쳐주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또한, 소매 부분에는 연밥이 빠져 나간 구멍처럼 동그랗게 구멍을 뚫었다. 셔츠의 뒷부분은 목부분에 연꽃잎 문양을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아래 부분에는 연꽃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풀잎 문양을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배치하였다(그림 26). 셔츠 형태는 기본형보다 길이를 길게 하여 때로는 원피스로도 착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26〉 디자인 V의 앞과 뒷모습.

### 3. 셔츠와 문양의 색채 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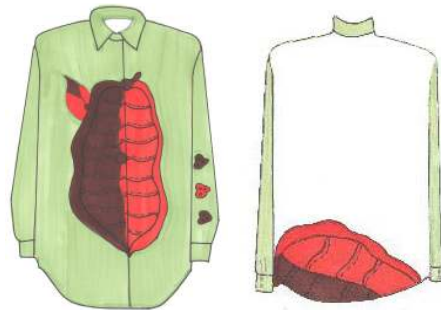
전통 문양에 현대적 이미지를 첨가하기 위하여 여러 현대 화가들의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피카소(Pablo Picasso, 1881 ~ 1973)의 작품들은 풍부한 색감과 더불어 강한 색상과 기하학적 형태의 표현으로 입체적이고 모던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피카소 작품의 이미지가 전통 문양을 활용하여 현대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도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선택하였다. 색상 추출 방법은 피카소의 작품집<sup>24,25)</sup>에서 작품을 선정한 후, 작품에 나타난 색상을 Pantone Textile Color specifier<sup>26)</sup>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물론 인쇄되어 있는 그림 속에서 색상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원본과 완벽하게 동일한 색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다. 색상 표기는 P.C.C.S. 표색계<sup>27)</sup>에 나타난 1pR, 2R, 3yR, ... 22P, 23rP, 24RP의 24색과 무채색 BK(검정), GY(회색), W(흰색)로 표기하였다. 색상 명으로 표기된 영문 두문자중 소문자는 색상 수식어이다. 색에 대한 정확한 값 표시는 Pantone Textile Color specifier에 나타난 번호를 사용하였다.

#### 1) 디자인 I

디자인 I에 현대적 이미지를 첨가하기 위하여 피카소의 'Girl with cock'(1933)을 선택하였다(그림 27)<sup>28)</sup>. 이 작품은 소녀가 수탉을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도발적인 이미지가 특징이다. 이 작품 속에서 10YG(16-0237 TP)와 4rO(17-1558 TP), 2R(19-1116 TP), W 등을 추출하여 디자인 I에 배색하였다. 디자인 I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셔츠의 바탕색은 10YG로 배색하였으며, 연잎의 왼쪽 면은 2R로 배색하였고 오른쪽 면은 4rO로 배색하였으며, 왼쪽에 붙어있는 연봉오리 또한 연잎과 동일하게 배색하였다. 소매에 배치된 연뿌리의 단면은 4rO와 2R로 배색하였다. 디자인 I의 뒷부분을 살펴보면,



〈그림 27〉 Girl with cock.



〈그림 28〉 10YG, 4rO, 2R, W를 배색한 디자인 I.

24) 한스야페, *피블로 피카소*, 김동익 역 (서울: 중앙일보사, 1991).

25) 문화방송 (1982). *Picasso in time*, 탄생 100주년 피카소 걸작전.

26) Pantone Textile Color Specifier (1982). N.J. U.S.A.: Pantone Inc. ISENI-881509-33-8.

27) 1964년 일본 색채연구소가 새로운 표색계로 일본색채연구 배색체계를 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P.C.C.S.는 일반교육 및 미술교육의 색채교육용 표준체계로 이는 조화배색 선택의 가이드로 만들어진 배색체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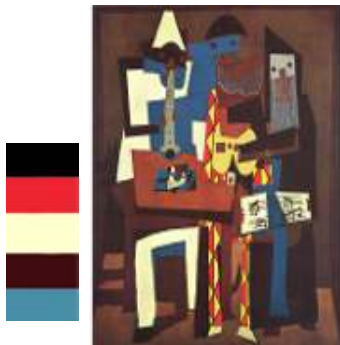
28) 한스야페, *op. cit.*, p. 110.



셔츠 밑단에 배치된 연잎의 왼쪽 면은 2R로 배색하였고, 오른쪽 면은 4rO로 배색하였다. 또한, 셔츠 뒷부분의 바탕색은 앞과 다르게 W로 하여 신선한 변화를 주었다(그림 28).

## 2) 디자인 II

디자인 II에 현대적 이미지를 첨가하기 위하여 피카소의 작품 ‘Three Musicians(1921)’를 선택하였다(그림 29)<sup>29)</sup>. 이 작품 속에는 세 인물 즉, 피에로와 어릿광대, 수도승이 나오는데 그들은 각자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클라리넷을 든 피에로가 왼쪽에 있고 중앙에는 기타를 든 어릿광대가 있으며, 수도승은 오른쪽에서 악보를 들고 있다. 이 작품은 밤색의 화면 바탕에 피에로 의상의 적색과 어릿광대 의상의 청색의 조화가 강하면서도 매우 모던해 보인다. 이 작품 속에서 BK, 2R(18-1664 TP), 8Y(13-0758



〈그림 29〉 Three musicians.



〈그림 30〉 BK, 2R, 8Y, 4rO, 18B를 배색한 디자인 II.

TP), 4rO(18-1230TP), 18B(18-4244 TP) 등을 추출하여 디자인 II에 배색하였다. 디자인 II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셔츠의 바탕색은 4rO로 배색하였으며, 왼쪽 면에 배치된 연 줄기는 2R과 18B, BK를 배색하였다. 디자인 II의 뒷부분을 살펴보면, 연 줄기에는 18B를, 한 조각 붙어 있는 연잎과 연밥부분에는 2R을, 연잎의 젖혀진 부분에는 BK를, 연밥의 안쪽에는 8Y를 배색하였다(그림 30).

## 3) 디자인 III

디자인 III에 현대적 이미지를 첨가하기 위하여 피카소의 작품 ‘Woman with mandolin(1925)’를 선택하였다(그림 31)<sup>30)</sup>. 이 작품은 여인이 만돌린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흰색과 청색, 적색의 조화가 간결하고 모던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작품 속에서 8Y(11-0616 TP), 24RP(13-1510 TP), 2R(19-1230 TP), 18B(17-4432 TP), 2R(17-1664 TP), 4rO(17-1353 TP), 6rO(16-1150 TP) 등을 추출하여 디자인 III에 배색하였다. 디자인 III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셔츠의 바탕색은 2R(17-1664 TP)을 배색하였고, 연잎의 나누어진 여러 면에는 8Y, 24RP, 2R(19-1230 TP), 8B, 4rO, 6rO 등을 배색하였다. 여러 면으로 나누어진 연잎에 다양한 색채를 배색함으로써 현대적인 그래픽 디자인처럼 표현하였다. 셔츠 디자인 III의 뒷부분에는 앞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문양을 배치하지 않았다(그림 32).



〈그림 31〉 Woman with mandolin.

29) Ibid, p. 84.

30) Ibid, p. 92.



<그림 32> 8Y, 24RP, 2R, 18B, 4rO, 6rO를 배색한 디자인 III.



<그림 34> 24RP, 14BG, 8Y, 2R, 12G, 4rO를 배색한 디자인 IV

4) 셔츠 디자인 IV

디자인 IV에 현대적 이미지를 첨가하기 위하여 피카소의 ‘Marie-thereise a la guirlande(1937)’를 선택하였다(그림 33)<sup>31)</sup>. 이 작품은 검은 배경을 뒤로 하고 얼굴의 정면과 옆면이 동시에 표현되어 있다. 머리에 화관을 쓰고 있는 마리 테레즈의 모습이 화사하고 밝게 표현되어 있다. 이 작품 속에서 24RP (15-2217 TP), 14BG(14-5413 TP), 8Y(13-0758 TP), 2R(19-1333 TP), 12G(15-5534 TP), 4rO(16-1150 TP) 등의 색채를 추출하여 셔츠 디자인 IV에 배색하였다. 셔츠 디자인 IV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셔츠의 바탕색은 14BG를 배색하였으며, 연밥에는 8Y를, 연밥의 줄기는 12G를 배색하였다. 연봉오리는 8Y와 12G를, 연봉오리의 줄기는 2R을 배색하였으며, 셔

츠 밑단에 배치된 연잎에는 24RP를, 연잎 줄기는 12G를 배색하였다. 셔츠 디자인 IV의 뒷부분을 살펴보면, 길게 사선으로 배치된 연 줄기는 8Y를, 연뿌리의 단면에는 24RP를 배색하였으며, 부드러운 곡선으로 분리된 셔츠 밑단에는 4rO를 배색하여 앞부분의 연잎을 돋보이도록 하였다(그림 34).

5) 디자인 V

디자인 V의 색채 배색을 위하여 피카소의 ‘The dream(1932)’을 선택하였다(그림 35)<sup>32)</sup>. 의자에서 잠자고 있는 젊은 여인을 묘사하고 있는 ‘꿈’은 화면 가장자리에 나타나있는 분홍색과 녹색, 황색이 중심에 나타난 회색 계열의 무채색과 함께 어우러져 신비하고 아늑한 느낌을 나타낸다. 이 작품 속에서 BK, GY(17-5102 TP), 10YG(15-0343 TP), 8Y (14-0756 TP), 24RP(13-1906 TP), 12G(17-6229 TP), GY (14-4502 TP), 4개(18-1441 TP) 등을 추출하여 디자인 V에 배색하였다. 디자인 V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목부분의 연꽃잎은 24RP로 배색하였으며, 연꽃잎 속의 연밥 문양은 보색인 12G로 배색하여 악센트를 주었다. 중간부분에 있는 연잎은 10YG로 배색하였으며, 연잎이 뒤집힌 부분은 4rO로 배색하였다. 또한, 문양에 의해 좌, 우, 상, 하로 나누어진 셔츠의 앞면은 각각 GY, 8Y, 10YG, BK 등으로 각각 다르게 배색하여 기하학적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또한, 이에 맞추어 소매의 색상도 좌우 다르게



<그림 33> Marie-Thereise a la guirlande.

31) 문화방송. op. cit., p. 53.

32) 한스야페, op. cit., p. 102.



<그림 35> The dream.



<그림 36> BK, GY, 10YG, 8Y, 24RP, 12G, 4rO를 배색한 디자인 V.

각각 12G와 GY(17-5102 TP)로 배색하였다. 디자인 V의 뒷부분을 살펴보면 목부분에 연꽃잎은 24RP로 배색하였으며, 셔츠 아랫단의 풀잎은 12G로 배색하였다. 뒷면의 바탕색도 앞면과 동일하게 GY, 8Y, 10YG, BK 등으로 각각 다르게 배색하였다(그림 36).

4. 제작 기법 선정

문양을 의상에 표현하는 방법과 관련된 선행 연구<sup>33~35)</sup>를 살펴보면 프린트나 염색, 직조, 자수, 아플리케, 퀼트, 비딩, 은박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것을 참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봉기의 다양한 장식 재봉을 사용한 아플리케 기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아플리케 기법은 수공예적인 이미지와 다른 직물을 덧붙인 입체감, 그리고 재봉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작업의 수월함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식 재봉 기법은 재봉기에 나타나 있는 20여 개의 장식 재봉을 검토한 후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법을 선정하여 연밥, 연잎, 연꽃, 연봉오리, 연줄기 문양에 사용하였다(표 1~5).

이상과 같이 디자인 발상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디자인을 실크와 마를 사용하여 실물로 제작한 결과는 <그림 37~41>과 같다.

<표 1> 디자인 I의 장식 재봉

장식 재봉	
연잎 문양	

<표 2> 디자인 II의 장식 재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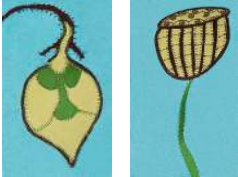
장식 재봉	
연밥 문양	

<표 3> 디자인 III의 장식 재봉

장식 재봉	
연잎 문양	

33) 김영숙, op. cit.  
 34) 이준하, op. cit.  
 35) 한정아, op. cit.




<표 4> 디자인 IV에 사용된 장식 재봉

장식 재봉	
연잎 문양	
연봉오리와 연밥 문양	



<그림 38> 연밥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II의 앞과 뒷모습.

<표 5> 디자인 V에 사용된 장식 재봉

장식 재봉	
연꽃과 연밥 구멍	
연잎	



<그림 39> 연잎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III의 앞과 뒷모습.



<그림 37> 연잎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I의 앞과 뒷모습.



<그림 40> 연잎, 연봉오리, 연밥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IV의 앞과 뒷모습.



〈그림 41〉 연꽃잎, 연잎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V의 앞과 뒷모습.

#### IV. 결 론

본 연구는 전통 문화를 패션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민화에 표현된 연꽃 문양의 현대화 작업을 거쳐서 현대 의상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연구 범위는 셔츠 디자인으로 하였으며, 연구 방법은 민화와 연꽃 문양에 관련된 문헌과 논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민화의 개념과 발달, 연꽃 문양의 유래와 상징에 대해 고찰하고, 디자인 발상과 관련된 문헌과 선행 연구, 패션 잡지 등을 참고로 하여 디자인 발상 방법 등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민화에 표현된 연꽃 문양을 모티브로 모던하면서도 미래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문양을 개발하여 셔츠 디자인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꽃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발상 과정은 문양 선택, 문양 배치, 셔츠와 문양의 색채 배색, 제작 기법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쳤다.

문양 선택 작업은 민화 속에 표현되어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의 연꽃, 연잎, 연봉오리, 연밥, 연 줄기 문양을 선택하여 정리하였다.

문양 배치 작업에서 디자인 I은 셔츠의 앞 중심에 연잎 문양을 세로로 길게 배치하고 연잎의 왼쪽 코너에는 연봉오리 형태를 배치하였다. 셔츠의 뒷부분은 밑단에 연잎 문양의 일부분을 배치하였다. 디자인 II는 셔츠의 앞부분에 연 줄기 문양을 왼쪽에 3줄로 배치하였고, 뒷부분에는 등 부위에 연밥 문

양을 배치하였다. 디자인 III는 셔츠의 앞부분에 연밥과 연꽃봉우리, 연잎을 배치하였다. 특히 앞부분 셔츠의 밑단은 연잎의 뾰족한 형태를 그대로 살렸으며 뒷부분보다 길이를 짧게 함으로써 뒷부분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어 연잎의 뾰족한 형태를 더욱 돋보이도록 하였다. 셔츠의 뒷부분에는 연뿌리를 사선으로 배치하고 그 아래 부분에 연뿌리의 단면을 재미있게 배치하였다. 디자인 IV는 셔츠의 앞부분에 연잎을 사선 방향으로 크게 배치하였으며, 앞부분의 길이를 뒷부분보다 짧게 하고 밑단에 연꽃잎 한 장을 꼬리처럼 부착하였다. 반면 셔츠의 뒷부분에는 문양을 배치하지 않았다. 디자인 V는 셔츠의 칼라와 목부분에 연꽃 문양을 스카프가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배치하였으며, 중앙에는 연잎 문양을 사선으로 배치하여 연꽃을 받혀주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셔츠의 뒷부분은 목부분에 연꽃잎 문양을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아래 부분에는 연못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풀잎 문양을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배치하였다.

셔츠와 문양의 색채 배색 작업은 전통 문양에 현대적 이미지를 첨가하기 위하여 현대 회화의 대가인 피카소의 작품을 선택하여 그 작품 속에서 색채를 추출한 후 셔츠와 연꽃 문양에 배색하였다. 디자인 I은 피카소의 작품 ‘Girl with cock’에서 10YG (16-0237 TP)와 4rO(17-1558 TP), 2R(19-1116 TP), W 등을 추출하여 배색에 사용하였다. 디자인 II는 피카소의 작품 ‘Three Musicians’에서 BK, 2R(18-1664 TP), 8Y(13-0758 TP), 4rO(18-1230TP), 18B(18-4244 TP) 등을 추출하여 배색에 사용하였다. 디자인 III는 피카소의 작품 ‘Woman with mandolin’에서 8Y (11-0616 TP), 24RP(13-1510 TP), 2R(19-1230 TP), 18B(17-4432 TP), 2R(17-1664 TP), 4rO(17-1353 TP), 6rO(16-1150 TP) 등을 추출하여 배색에 사용하였다. 디자인 IV는 피카소의 작품 ‘Marie-Therese a la guirlande’에서 24RP(15-2217 TP), 14BG(14-5413 TP), 8Y(13-0758 TP), 2R(19-1333 TP), 12G(15-5534 TP), 4rO(16-1150 TP) 등을 추출하여 배색에 사용하였다. 디자인 V는 피카소의 작품 ‘The dream’에서 BK, GY(17-5102 TP), 10YG(15-0343 TP), 8Y(14-0756 TP), 24RP(13-1906 TP), 12G(17-6229 TP), GY(14-4502 TP), 4rO(18-1441 TP) 등을 추출하여 배색에 사용

하였다.

제작 기법 선정 작업은 다양한 장식 재봉 기법을 고찰한 후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법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디자인 발상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디자인은 실크, 마 등을 사용하여 실물로 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전통 문양을 활용하여 현대적인 셔츠 디자인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은 발상 방법에 따라 전통 문양의 시대적 보편성을 가능하게 하며, 전통 문양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디자인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꽃 문양을 활용한 다목적용 직물 개발이나 연꽃 문양의 형태적 이미지를 활용한 가방디자인 등의 소품 개발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김영학 (1996). *민화*. 서울: 대원사.
- 김철호 (1988). *한국의 미*. 서울: 중앙일보사.
- 노현경 (2004). “한국 문인화에 있어서 연꽃의 조형성을 응용한 현대 의상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현옥 (2007). “한국의 전통 문양을 응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연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열수 (1997). *민화이야기*. 서울: 디자인하우스.
- 윤열수 (2000). *Korea Art Book*. 서울: 도서출판 예경.
- 이우환 (1982). *이조의 민화*. 서울: 열화당.
- 이정호 (2007). “현대남성 셔츠에 나타난 성 개념과 미적가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하 (1999). “한국 민화에 있어서 꽃그림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두빈 (1997). *민화란 무엇인가*. 서울: 서문당.
- 장혜란 (2009). “한국 전통 문양의 현대적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순 (2004). “연꽃 문양을 이용한 직물디자인 개발 및 문화상품 제작.”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권 2호.
- 한스야페 (1991). *파블로 피카소*. 김동익 역. 서울: 중앙일보사.
- 한정아 (2003). “전통 문양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ntone Textile Color Specifier (1982). N.J. U.S.A.: Pantone Inc., ISENI-881509-33-8.